

독자의견



River & Culture

수원천 자랑

이기 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우리 수원에는 잘 가꾸어지고 정비된 수원천이 있다. 맑은 물에 고기도 사는 예쁜 하천이다.

오랜만에 주말에 수원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선 지난 주말. 맑은 물가를 달리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날도 선선하니 산책하듯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딱 좋을 듯하여 수원천으로 달렸다. 최근에 물이 아주 맑아져서 발 담그기도 좋을 것 같아 샌들을 신고 갔다.

수원천 주변 팔달문시장, 지동시장을 오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은 콧노래를 나오게 한다. 계절은 이렇게 순리를 지킨다. 우리네 살아감도 저랬으

면 좋으려만...

어쨌거나 자연은 욕심이 없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몇 해 전 열반하신 성철 큰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란 높으신 큰 뜻을 남겨두지 않으셨나.

수원천에 내려가 다리 밑에서 발을 담가 보았다. 지금 전국의 강은 가끔씩 녹조나 적조가 너무 심각해서 걱정이라는데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다.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물은 정직하며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펌프로 퍼올리지 않으면...

물의 특징 중 다른 하나는 또 함께 하는 것이다. 물과 물이 섞이면 구분되지 않는다. 그만큼 물은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우리가 된다.

우리 수원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수원천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 서울의 청계천은 한강물을 강제로 끌어올려 펌프질 하는 것인데 반해 우리 수원천은 광고산에서 발원한 자연수가 정말 인공의 노력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으니.



제1회 하천사진공모전 동상 이광민작
고성과 처냇물의 조화

그리고 우리 지역처럼 큰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가 감탄을 느낀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청정 하천이 흐르고 있다니 하면서...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내게 개천은 남다른 추억이 담겨져 있다. 동무들과 발가벗고 물놀이도 하고, 미꾸라지도 잡고, 떡도 감았던 그 실개천의 무지갯빛 추억이 필름처럼 스쳐 남아 있다.

누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을 남겨 주었을까. 조물주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수원의 가장 큰 전통시장을 양쪽으로 끼고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우리 수원천은 그 위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성곽이 우뚝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명품 하천으로 소문나 있다.

이런 자연적 문화에 수원시민으로서 새삼 자긍심이 생겨났다.

항상 수원천 자랑을 하고 싶다. 오다가다 혹시 수원에 들르게 되면 잠시 머리도 식힐 겸,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수원의 재래시장도 한번 둘러볼 겸 우리 수원천에 둘러 맑은 물 줄기를 보고 가시길.

아마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의 절반은 씻겨질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수원천을 보면서 다시금 옛 추억을 떠올려 본다. 어릴 적 시골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던 그 실개천을 따라 포근했던 유년시절, 그 기억들이 스물스물 되살아난다.

그 지난 기억들에 대한 새로운 추억들이 보태지며 인생이 더 두터워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손을 잡고 앉아서 총총 걸어가는 꼬마 녀석들에게 이 수원천은 어떤 빛깔의 추억으로 남을까? 엄마와 꼬마 아이들, 그 뒷모습으로 세대를 잇고 추억을 잇는 물이 흐르니 마음이 정겹다.

물과 물이 만나면 하나가 되듯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원천을 따라 걷는 시민 모두가 항상 너그럽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

새벽

박태진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미명인 새벽에
아침을 만나는 찰나
내가 서 있다

시나브로
어둠이 물러나면
밝음은 익숙한 몸놀림으로
자리를 잡는다

새벽은 아침을 위해
짙은 어둠을 열게 퍼
마중물 되고

마침내 아침이 오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신속 정확하게 물러간다

사람들은 새벽보다
아침을 더 좋아한다
장엄한 일출을 기억하는 사람은

새벽이 없이는
아침도 올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못한다. 🌊

